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자취...②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새롭게 산업보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필자가 이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자 하는것은 몇사람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때문에 기억이 사라지기전에 아는데로 기술해 보고자 하는것이 며 후에도 정리 작업을 하는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물론 뚜렷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추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릇되게 전달될 위험도 있어서 망서려졌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올것 같아 시작하였다. 글을 써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나가고자 하니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가톨릭의대 이 광 목

산업보건사업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절은 6.25 동란이 일어난 후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가 있었던 때인지라 법은 제정되었지만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직제로서 노동관계기관이 삽입된 것은 1948년 11월 4일로서 당시 사회부에 노동국이 생긴 것이 처음이며 1955년 2월 7일 행정부 개편으로 확장되었고 1963년 8월 31일 노동청으로 개편되었고 특별시와 각도에 지방사무소가 생기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시, 도에 노동부의 감독관이 파견배치되어 있는 형태로서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었다. 1963년경은 1960년 4.19 혁명을 거쳐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다시 새로운 군사정부가 1962년에 세워진 후이어서 강력한 행정력을 가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산업보건행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에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후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산업장이 증가하게 되었고 취업근로자가 증가됨에 따라 1981년 4월 8일부로 노동청이 보사부산하에서 독립되어 노동부로 승격하게 된다.

다시 부산 피난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50년 6월 6.25 동란이 발발하여 산업보건협회까지 창설되었던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1951년 부산에서 새롭게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재건총회가 있었다고 들려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현재로서는 찾을 길이 없다. 또 그 당시 어떤분들이 주관하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인 조규상(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교수에 의하면 부산에서 산업보건관계 연구와 사업을 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피난시절이지만 서울대학교가 부산에서 개교하게 됨에 따라 당시 부산시 대신동에 천막교실을 짓고 개교하였었다.

이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위생학교실에 다시 모이셨던 교수님들이 학생강의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어서 부업(?) 비슷하게 그때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던 조선방직주식회사 부속의원을 맡았었다고 한다. 이 공장에는 8.15 전부터 부속의원이 있었던 곳이어서 2층 목조건물로서 당시로서는 훌륭한 의무실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김인달(당시 서울의대 교수)교수 밑에서 조규상교수의 몇분이 틈틈이 방직공장의 여

공들의 건강관리를 맡아 일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연구도 시도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53년 9월에 정부와 시민이 서울로 환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짧은 기간이었고 따라서, 많은 연구를 할 수는 없었으며 당시의 업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고 있다.

그래도 이때의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사업을 한 시초이고 연구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방직공장과 관련을 갖게 됨으로서 개인에게나 산업의 학연구면에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규상교수의 산업의학에 관한 집념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난시절이 끝나고 정부가 환도하였고 따라서 서울대학 의과대학도 서울에서 다시 개교하게 되었다. 환도후의 상황은 처절한 것이었다. 서울시의 대부분이 초토화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업단지였던 한강변의 영등포지구와 노량진의 공단은 모두 흔적만 남았고 파괴된 상태이었다. 환도 이전까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의과대학은 미 제 5공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개조되어 있었고 모든 시설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당시 필자는 대학 1년생이었는데 서울에 돌아와 등교하여 보니 책상 의자 등은 운동장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것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당시 한가지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이 변소였다. 그때만 해도 양변기를 본 한국학생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변소라는 것이 모두 양변기형태이었는데 재질은 목재였고 변소내부에 칸막이가 없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용할 수 없었고 더욱 여학생의 경우는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건물내에 몇개 안되는 재래식 변소 앞에 쉬는 시간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의 긴 줄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정말로 가관이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산업보건사업이나 연구가

진행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그래도 당시 여중업원들에 대한 생리현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고 당시 몇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지금도 조규상교수께서 보관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논문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후 조규상교수(당시 서울대학교 강사)는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공군의 항공의학연구소에서 환경위생과를 맡아 주로 항공관계의 환경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 이때의 소장으로 계셨던 최재위선생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밀어주어서 일하기에 쉬웠다고 조규상교수는 회상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1955년경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전임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을 지나셨던 최영태교수께서 공군 항공의학연구소로 찾아 오셨다고 한다.

이때 최영태교수는 피난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대한석탄공사 의무실에 계셨을 때이었는데 찾아오신 목적이 당시 석탄광산에는 진폐증환자가 많으며 직업성난청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외에 탄광의 작업환경이 나빠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겠는데 같이 힘을 합쳐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최영태교수는 원래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하시고 세균학을 전공하셨다고 한다(당시는 위생학내에 현재의 세균학, 환경위생학, 기생충학, 보건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분은 8.15 직후 미군정시대에 방역국장을 지나시기도 한 분으로서 당시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대유행이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공헌하신 분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보건학을 공부하셨고 돌아오셔서 산업보건에 몰두하시다 6.25를 맞았다. 피난시절에 우연히 대한석탄공사의 의무실과 연관을 맺게 된 것이 다시 산업보건을 하시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분의 열정이 조규상교수를 찾게 되고 두분이 협력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본다.